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6.(화) 11:00 < 4.17.(수) 조간 > 배포 2024. 4. 16.(화)

FTA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지원을 넘어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선의 FTA종합지원센터 방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현안, 수출 규제 등 통상현안 관련 정보제공·애로해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6일(화)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 내 FTA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였다.

FTA종합지원센터는 2012년에 출범한 민관합동 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조직을 두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상담·컨설팅·교육·설명회·홍보 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FTA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기여한 한 사람으로서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며, “FTA종합지원센터는 FTA 제도 정착에 기여한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왔다”며, FTA종합지원센터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어,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증가하고*, FTA 협정수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FTA 활용지원도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FTA종합지원센터가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애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FTA 수출활용률(%, ‘22→’23) : 전체(75.5→82.9, 7.4%p↑), 중소기업(62.5→73.4, 10.9%p↑)

이에 FTA종합지원센터는 중복협정 적용, 누적 원산지 적용 등 최근 FTA 활용 이슈와 더불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현안, 수출 규제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애로해소 등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양용태 (044-203-57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4. 4. 16.(화) 13:00 ~ 14:00 (60분)

□ **〔장 소〕 FTA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 **〔주요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장,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활용정책실장, 제도개선실장 등

□ **〔주요 내용〕** ① FTA종합지원센터 현황 보고
② FTA종합지원센터 개선방안 논의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3:00~13:05	(5′)	모두발언	본부장
13:05~13:15	(10′)	FTA 종합지원센터 현황 보고	종합지원센터 단장
13:15~13:25	(10′)	개선방안 발표	활용과장
13:25~13:45	(20′)	질의 응답 및 토론	
13:45~13:50	(5′)	마무리발언	본부장
13:50~13:55	(5′)	이동(51층→3층)	
13:55~14:00	(5′)	FTA종합지원센터 시찰	현장방문

* FTA종합지원센터 현황 보고 및 개선방안 발표는 트레이드센터 51층 소회의실에서 시작